<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김 영 수 (전 휴스틸 부사장)		
면담자	조연희	면담지원자	이혜숙
면담일시	2025. 8. 21.	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1
녹취문 작성자	조연희	회차	1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3:58~00:04:24)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확산문화원의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 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김영수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이고, 장소는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조연희가 하겠습니다.

2. 근황 및 개인 신상 (00:04:25~00:05:40)

면담자: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근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구술자: 예전보다 많이 더워졌죠. 덥지만 취미운동과 여러 가지 소일거리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면담자: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술기록을 위해서 김영수 선생님 정확한 생년월일과 출생지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술자: 56년 8월 19일이고요.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면담자: 그럼 강원도에서 인천으로 오신 건 언제쯤

구술자: 그것까지 얘기하면 한참 먼데요. 중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다녔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인천 온거는 83년도 정도 됩니다.

면담자: 대학에서 저번에 면담 때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히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구술자: 당시에는 공과대학이 상당히 전망이 좋았고, 또 취업 관계도 그렇고 기술력의 전기계통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희망이 있어가지고 선택했죠.

3. 한국 파이프 입사 당시 분위기 및 성장 (00:05:41~00:12:34)

면담자: 81년도 입사 당시에 회사 규모랑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구술자: 당시에는 회사의 계획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베네수엘라에 공장 진출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확장될 거라고 보여졌고, 당시엔 특별하게 사우디 진출 때문에 아랍어과 출신도 뽑았어요. 베네수엘라 때문에 스페인어과, 영어영문과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인원도 한 60여 명 들어왔었고 그래서 상당히 커져 나갈 회사라고 생각이 됐었죠.

면담자: 입사 당시에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 수가 60여 명

구술자: 아니 신입사원만 입니다

면담자: 신입사원만

구술자: 해외 진출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당시에 총 인원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명 정도였던 것 같고, 나중에 제일 인원 수가 많았을 때는 전체 직원수가 800여 명까지 됐었어요.

면담자: 그 사무실 외에 전체 공장 인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메리트를 보고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됐었던 걸까요?

구술자: 여러 가지 전망에서 우선 경인직[1]에 있었었고, 또 해외 진출 계획이 있었었고, 당시 해외 진출이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해외진출의 희망이 그다음 철강 쪽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상당히 메리트를 느꼈죠.

면담자: 한국 파이프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회사에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한국 파이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존재로 여겨졌었나요?

구술자: 당시에는 어쨌든 택시 기사님들 모두 한국 파이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였었고 회사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철강사에서는 큰 회사였던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인천 제철 지금 지금 무슨 제철인가 모르겠다. 현대제철. 그거 말고는 큰 회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철강 쪽에 대해서 그때 수출 기업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였었고. 당시에 파이프 회사로는 부산 파이프하고 한국 파이프 두 회사가 가장 컸을 거예요.

그 외에 있는 회사들이 당시에 일신제강, 나중에 동부 파이프로 인수되었지만 부산의 연합철강등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하여간 부산 파이프와 한국 파이프가 당시에 제일 큰 파이프 회사였습니다.

면담자: 그럼 약간 그 지역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

구술자: 많았죠. 쉽게 못 들어왔어요. 경쟁도 심했고 나중에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였지만 목포 공장에도 입사가 쉽지 않았죠.

면담자: 지금은 몇 대 몇 비율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때 당시

구술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았고

면담자: 그럼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 만날 때 “나 한국 파이프 다녀” 이러면 되게 부러워하는 시선도 많았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랬죠, 당연히. 그다음에 교통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이 통근버스가 있었고, 전철등 교통편도 괜찮았으니까요 한국 파이프가 포스코보다 1년 더 빨라요. 설립이 67년도인데 포스코가 68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수출입 관계로 해서 이제 원료가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포항 포스코에서 원료를 만들기 전이니까요 원대강[2]이라는 게 있어요.

철강 파이프를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고. 파이프가 우리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땅속 아파트 건물 속 모든 데 안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구조용 배관용 농업용등 모든부분,파이프라는 거는 국가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석유채굴과 운송 파이프 쪽으로 많이 진출이 됐죠. 석유 나오기 전, 석유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기 전에는 좀 아파트 쪽으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석유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쪽으로 패턴이 많이 넘어갔어요.

면담자: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구술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파이프 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 건축에 파이프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이것을 전부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납기도 빠르고 수익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었죠. 그 당시에 사우디에서 파이프 공장을 차리려 했었는데 한국의 어느곳과 연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접촉한 회사는 거부하였고 한국 파이프사와 협의가 되어 사우디측도, 회사로서도 큰 도움이 됐죠.

아마 부산 파이프는 경쟁 회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후 베트남에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등 해외에 진출했지만 한국파이프는 벌써 그때 80년도 이전부터 적극적인 진출을 하였으니까요

면담자: 굉장히 빨랐네요.

구술자: 굉장히 빨랐어요. 그 당시에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좋았던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덕에 이제 우리 종업원들 사우디 파견으로 급여도 많이 받아왔고 그것이 가정에도 많이 보탬이 됐죠. 회사가 설비수출은 아프리카 케냐와 방글라데쉬에도 하였지만 사우디에는 설비와 함께 공장건설을 하였고 함께 종업원 파견의 종합 프로젝트를 진행한것이었죠

4. 월급날의 추억 (00:12:39~00:15:23)

면담자: 지금 급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이어서 여쭤볼게요. 처음 월급 봉투도 가져오셨는데, 그 신입사원 초봉이 대기업과 비슷했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월급 아까 말씀해 주셨던 2개월 동안 받았던 신입 초봉이랑 그리고 정식으로 받았던 그 초초봉이 얼마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잘 기억 안 나는데 수습 기간 두 달 동안은 지급액이 22만 7천 원이네요. 22만 7천 원이고 아마 수습 기간 이후부터는 한 26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26만 원 당시에 물론 5만 원짜리는 없었었고, 주로 1만 원짜리하고 천 원짜리로 채워서 받았던 것 같아요.
면담: 그때 당시 이제 물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구술자: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부족한 느낌은 없었고. 이 중에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15만 원인가를 예금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15만 원. 그럼 나머지 한 10만 원 가지고도 한 달 생활이 충분했으니까.
면담지원자: 그때 금리 생각나세요?
구술자: 모르겠어요.
면담지원자: 이자율 엄청 높았거나
구술자: 높았을 거야, 아마. 높았을 거라 기억해요. 근데 의료보험이 그때도 있었나?. 의료보험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
면담지원자: 그 큰 회사들은 입사할 때부터 그냥 되지 않았어요?
구술자: 아니,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된 것이 시작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의료 보험료가 3500원이 여기 포함돼 있네.
면담자: 대기업이었네요. 그냥 대기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구술자: 당시에 되게

면담자: 혹시 첫 월급으로 뭐 사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구술자: 아 그 적금 들어온 게 가장 기억이 나요. 15만 원짜리가 처음
면담자: 첫 월급 받자마자
구술자: 그때부터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입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금액은 정확히 않았는데 한 15만 원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결혼할 때 이제 집사람한테 넘겼죠.
면담자: 이게 월급을 현금 봉투로 받으셨었는데 이렇게 월급날에 특별한 기억이나 가족들과 일화가 있으실까요?
구술자: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상값
면담자: 외상값
구술자: 갚았던 기억이 나요. 그 월급날이 25일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25일 날 되면 주변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이 경비실 앞으로 와가지고 퇴근 시간에 기다렸죠. 줄을 서서 회사 장부 수첩 하나 들고서 거기에 누구누구 있으면 돈을 받고 장부에 이름과 외상값 지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식사나 술을 마시고 이름과 외상값을 노트에 쓰면 되었거든요

면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또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좀 있었던 시절이니까

구술자: 그때는 뭐 카드 이런 게 없으니까 외상이라는 게 그냥 이름만 달고 외상이니까. 그렇게 했었었고 외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외상 얼마든지 월급날 되면 갚을 수 있으니까

면담자: 또 이제 믿을 수 있는 회사이고 하니

구술자: 회사에서도 다 했었고

면담지원자: 1977년도부터 의료보험이

구술자: 그래서 그때 가입됐구나

면담지원자: 생각보다 진짜 빨라요.

구술자: 어 빨랐네

면담지원자: 연금은 80년

구술자: 연금이 그랬구나. 연금 86년 7년 맞아. 87년인가 그때부터였고 의료보험은 훨씬 빨랐네요, 우리나라가

5. 전기 설비의 보전 업무와 애로사항 (00:15:31~00:24:50)

면담자: 입사 당시에 처음 맡았던 업무가 무엇이셨어요?

구술자: 전기 설비에 대한 보전이었습니다, 철강 파이프 만드는 게 크게 보면 기계하고 전기예요. 기계하고 전기 물론 금속이 기본이 되는데 원료로 가공, 절단하고 용접해서 파이프를 만드는 기계설비와 그다음에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전부 전기설비이고. 전기가 신경계 신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생산설비라는 것이 모두 전기 설비와 기계 설비로 이루어진 거죠.

면담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네요. 이 전기가 잘못되면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거

구술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기계는 고장이 나면 보이거든요. 근데 전기는 고장 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그거야. 기계는 어쨌든 뭐가 부러지면은 대충 언제쯤 복구된다는 게 보여져요. 전기는 쉽게 복구되면 금방 복구되지만은 원인을 모르면 하루 이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면담자: 찾아내는 게

구술자: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면담지원자: 근데 옛날에는 연결이 모두 배선이었잖아요. 지금은 전자회로니까 진짜 안 보이고

구술자: 그렇죠. 더 안 보이죠

면담지원자: 저희 오빠가 예전에 라디오 듣고 TV 뜯고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벼라별걸 속을 다 봤어요. 그때는 아빠한테도 엄청 혼나고 오빠가 시계 뜯고 뒤집어서 맨날 근데 그 안에 막

빨간 선 노란 선 무슨 영화처럼 엉망 막 엉켜 있어. 근데 그중에 이제 뭐가 약간 탈락되거나 하면 다시 답답해 주면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오빠가 많이 고쳤던 기억도 나요. 망가뜨리기도 많이 망가뜨리고. 진짜 일하실 때 그렇게

구술자: 그랬었죠. 그 배선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인 것이 접촉이 안 좋은 거 있어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이럴 경우 매우 어려워요

면담지원자: 차라리 떨어져 있으면 붙이면 돼.

구술자: 그럼요 붙이면 제일 쉽죠.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든 게 전기에서는

면담자: 이거는 그런 경험이 쌓여도 사실 바로 찾기는 어려울

구술자: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상태는 어디 어느 부분이 고장이라는 것을 알게되죠. 그다음에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니까

면담자: 그러면 이제 전기 공학을 전공하시긴 했지만, 실무에 바로 투입되셨을 때는 좀

구술자: 어렵죠.

면담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설비의 작동원리를 알기전까지

면담자: 그러면 진짜 배우면서 다시 쌓는다는 기분으로 계속 연차를 쌓아가셨을 것 같아요.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기계랑 거리가 좀 멀어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진짜 더

구술자: 그거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특히 일본 기계를 많이 사 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예전 경험담으로 배관 배선을 지하에 하는경우가 있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 갈 때 이게 곧장 가지 않는다고요. 다른 설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죠. 이렇게 땅 속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얼마로 내려가서 좌로 이어지고 해서 이렇게 간다. 설계가 되면 배관을 설계에 맞추어 지그재그로 연결하고 이렇게 땅속에 매설하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선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전기 배선할 때 이렇게 공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설계대로 지하에 배관한다니까. 원리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들.

근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 낸 거가 뭐냐 하면 그 플렉시블 튜브[3]가 있었어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요즘은 다 그렇게 쓰는데 구부릴수 있잖아요. 철강 파이프로 지그재그 이렇게 꺾어져서 갈 일이 뭐 있어 그냥 쭉 휘어지면서 배관하면 되잖아. 플렉시블하니까 원하는대로 배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기선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 일본 엔지니어들이 놀랐죠

면담지원자: 일본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면 잘 바꾸지 않아

구술자: 바꾸지 않죠. 바꾸지 않았고 원리 원칙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옛날에는 참 그런 게

있어. 일본 엔지니어들은 이 전기 스위치 올리기 전에 모든 걸 다 점검해. 하나씩 하나씩 전기 배선도 한줄씩 연결확인 하고 단자에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 확인해보고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결선하고 재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위치부터 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면담자: 안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구술자: 작동이 안되죠 안되면 다시 원인 찾는데 시간과 힘이 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거기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술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번은 설비 설치를 할 때 전선이 짧았었나. 이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선을 연결할 때 끝부분의 전선피복을 벗기죠. 그다음 두 전선을 겹쳐서 꼬죠. 그 상태에서 절연 테이핑을 하니 옆에서 놀라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일본 기술자는 일정길이만큼 피복을 벗기고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 터미널을 끝에 물리고 연결시켜 주는 기계가, 이만한 게 있어요. 양쪽 물려주는 거. 그리고 거기다 완벽히 납땜을 하고 이쪽도 납땜 해서 연결하고 볼트 체우고, 그다음에야 절연 테이핑하고 이렇게 한 번 하면 아마 영원히 고장없이 사용할거예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결부분이 풀릴 수도 있고 접촉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작업하는데 당시에는 쉽게쉽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류에 AC[4], DC[5]라는 게 있어요. 이 교류하고 직류가 있는데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선과 직류 전기선을 따로따로 배관해요. 그렇지 않으면 간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조그만 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배선에 설계가 달라지죠 당시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같이 배관배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어떤 전기 파장이라든가 간섭영향에 의해서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차단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참 그게 부족했지요 그런 것들이.

면담자: 빠른 빠름이 좀 영향이 많이 크지 않았을까요

구술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담지원자: 공사 기간도 줄여야 되고 비용도 줄여야 되고 하니까

면담자: 철강 파이프가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시기라 12시간 교대 18시간 막 교대까지 하셨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실제 근무 분위기는 그때 어땠었나요?

구술자: 지금 생각하면 노동 강도가 세니 약하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산량이 필요하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덥고 춥고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당시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었고 선풍기 있으면 다행이었고 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업환경도 상당히 안 좋았죠. 매연도 심했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었고 오로지 생산량 채우는 거 그리고 하루를 사고없이 안전하게 끝나면 다행이고 거기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생산량 다 채웠다 잘

했다. 오늘 퇴근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자 뭐 보람 다 주변회사들도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다 비슷했으니까. 그나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일감이 충분했었고 그런 게 더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면담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구술자: 맞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모르면 차라리 더 행복하지 않을까. 경쟁사회에서는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경쟁사회가 결국은 기준이 뭐예요? 다른사람이 기준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못하면 떨어진 것 같고 남보다 빨라야 되고 말이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정말 예전에는 스트레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 우울증 이런 것도 몰랐던 것 같아. 우울증이라는 거 그냥 힘들다 힘들지 않았다 이런 거 아프다 아프지 않다 이 정도.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면담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피곤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구술자: 어쨌든 옛날 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당시 여성 노동자 현황 (00:24:16~00:25:14)

면담자: 그럼 그때 당시에 여직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었나요? 그 남녀랑 비교했을 때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구술자: 공장 현장에는 없었으니까. 전부 철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없었고 사무실에만 있었는데 한 10% 정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미혼 여성분들이셨나요?

구술자: 거의 다 그렇죠.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당연히 불문율처럼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다 퇴직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럼 보통 여직원분들은 어떤 업무를 맡으셨어?

구술자: 보조 업무죠. 사무실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타이핑 쪽이 주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타이핑 부서내 서류 관리등

면담자: 서류 관리.

7. 자동화 설비 도입과 해외 수출 (00:25:15~00:30:20)

면담자: 이게 찾아보니까 이 80년대 이제 자동화 시설이 막 이제 투입되는 시기였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계 다루는 곳에 한국 파이프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구술자: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는 거의 반수동적인 게 많았었는데 점점 자동화 쪽으로 개발된 것이에요. 아까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에는 설비 작동을 위해 릴레이라는 부품을 활용하여 설비운영을 하였는데 이후 PLC가 개발되어 배선없이 컴퓨터 식으로 다 바뀌어졌고 모든 시스템들이 간편해지고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되었죠 지금은 단위 설비마다 컴퓨터가 안 들어 간게 거의 없을겁니다
면담자: 그럼 좀 이렇게 뭔가 위험한 요소들이 조금 줄어 들었을까요?
구술자: 위험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죠 도금공정에서는 파이프를 아연을 녹인 도금솥에 담그고 사람이 일일이 다 들어 올렸거든요. 이 공정에 자동 인양 장치가 개발되어 작업자가 수작업없이 자동으로 파이프를 침적시키고 인양되는 자동화가 개발이 됐죠.
이 작업이 매연과 더위 노동강도와 위험성등 어려움이 가장 많은 작업이었습니다
면담자: 이게 좋은 면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동화 시설이 되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반대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구술자: 그게 아니라 노동강도가 줄어들고 설비가 늘어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준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났죠. 회사에서 인원이 줄 때는 언제 줄었냐면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을때 또 IMF라든가 이럴 때 감원이 되었죠 그래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줄었을 거야. 아마 사무실이 많이 정리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 공장부분은 설비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면담자: 오히려 그 자동화 설비가 들어옴으로써 더 직원 수가 확 더 늘어났다.
구술자: 자동화 설비로 늘어난 게 아니라 설비가 늘어나면서 자동화가 같이 병행이 되니까 일단 유지가 되었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추가설비와 추가인원이 발생하고 지금은 어쨌든 옛날에 800명에 비교하면 증가설비에 비해 인원은 줄었죠. 생산량은 늘어났고 옛날에 년간 30만톤 정도였었거든요. 회사 생산능력이 년 30만톤 이었는데 지금은 공장도 늘어났고 생산능력이 100만 톤 가까이 됐어요. 예전에 년 20만톤 생산하면서도 제일 많은 인원이 있을 때 800명이었었는데 지금는 증가된 생산량이지만 한 500명 정도에서 아마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양은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동화죠. 자동화 설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한가지는 예전 소구경의 파이프를 주로 생산하였지만 지금은 대구경 생산으로 단위시간당 생산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면담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술자: 상승 속도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상승하는 속도 (시간당 생산량)

면담자: 입사 초기에 보셨던 거랑 점점 발전돼 가는 걸 보면서 또 느끼셨던 게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발전해 가는 걸 보시면서도

구술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람이고 재미있고 그렇죠. 입사 초기 생산량과 기술력 설비와 비교했을때 퇴직때의 설비능력, 자동화 작업환경 사원들과의 유대감 효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았죠 보람있었습니다. 생산성에서 제일 재미있을 때가 뭐냐면은 다음 날 생산결과를 볼 때 제조공장에서 생산은 실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의 업무 결과는 월말이 되어야 또는 분기말이 되어야 나오잖아요. 영업 이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데 제조업은 이익까지는 모르지만은 생산량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는 금방 알죠. 하여간 작업자들이 이제 같이 으샤으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또 해외 수출하는 경우 특히 멋있죠. 해외 수출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해외에서 제품 검사자들이 와요. 특히 인도에서도 많이 왔었었고 한국 파이프가 세계 몇 나라까지 수출했나 하여간 뭐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동남아도 그렇고 중동과 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수출했고 지금은 중국에 수출하는 게 거의 없는데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중국이 고급 파이프 생산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석유 유정용 파이프도 많이 수출했었고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에도 수출했고 중국, 인도 사람들 검사원들이 와서 한 달씩 검사도 같이 하고 나중에 배에 실어서 보내고 재밌죠. 하나의 프로젝트 생산이 끝나면

면담자: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시면서 그 해외 파견이 되게 잦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세요?

구술자: 어떤 거요?

면담자: 해외에 이제 출장을 가시거나 이러실 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다고 하면

구술자: 어떤 게 있을까 인도 쪽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인도의 검사원들중 머리가 긴 그 터번[6]을 풀르면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터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놀랐어요.

면담지원자: 그 시절에는 길었나 보다

구술자: 터번 쓰면 모르겠더라고요.

면담지원자: 우리 옛날

구술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좀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저희 공장에 연수생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과 목포 월출산에 한 번 갔었거든요. 산행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공장주변이 모두 사막인 지역에서 일만 하다가 산과 나무 계곡 물들이 있는 곳에 가니 얼마나 신나하던지. 하루 야유회를 재미있게 보내고, 약 20명 와서 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8. 중국과의 수교 (00:30:21~00:34:50)

면담자: 자전거 선물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예전에는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죠 교수 한 분을 초빙해서 해서 여기 인천공장 강당에서 전 직원 다 모아놓고 강의가 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때의 중국 현황, 경제 상황 이런 거에 강의가 끝나고 회사에서 자전거를 선물했는데 자전거 선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 중국에서는 상당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죠 자전거 선물이 지금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 고급 승용차 한 대 선물한 거하고 같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서 놀라기도 하고 중국이 아직은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면담자: 그때 당시에 중국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았나요?
구술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은 상해라든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도 당연히 없었죠.
아마 홍콩을 경유해서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 그때가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인가요?
구술자: 몇 년도 수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면담자: 수교가 80년대 초반으로 아니 잠깐만
구술자: 그러면 그 전후 같은데 그러면은
면담자: 제가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교가 제가 적어놨는데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쯤이니까 그분이 와서 강연을 하셨겠죠
구술자: 그럼 한번 찾아볼 필요가
면담자: 네.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그분이 오셨을 때 몇 년도였었어요?
구술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교가 그러니까 그렇겠네. 노태우 정부.
면담자: 네 그쯤이라 네
구술자: 그래도 80 수교 그때쯤이었던
면담지원자: 한중수교 1992년
면담자: 92년인가요?
구술자: 그럼 그전인데
면담자: 그전에 그럼 되게 빨리 했는
구술자: 전 같은 데 그러면은 판매대회 같은 데
면담자: 되게 빠른데
구술자: 92년
면담지원자: 교수였으니까 학술 강연 이런 걸로 특별히 왔다거나 초청을 초청을 일단 하고
구술자: 아마 그렇게 가능은 가능했었을지 모르겠네.

면담지원자: 사적으로 움직이는 건 안 됐어요. 안 되고 업무에서 요청을 하니까 북한에서 허락하고 중국에서

구술자: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면담자: 굉장히 빨랐네요.

구술자: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특이한 분이다라고 정부도 생각하기를 중국 사람 옛날 중공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공. 옛날에 중국이 아니었잖아 옛날에 중공이었지.

면담지원자: 그러면 교수님 오시고 옆에 통역사가 통역하고

구술자: 당연히 통역 했죠.

면담지원자: 그렇게 강의 강의 시간도 꽤 길었겠다.

구술자: 아마 1시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모아놓고 하니까 최소한 1시간은 생산을 정지하죠. 10분 한다고 잠깐 세우고 강당에 모이지 않았으니까.

면담자: 근데 그때 80년대에 이렇게 외국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정도면은 그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쉽지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구술자: 글쎄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신입사원 때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고 중국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특이하게 강의하는구나

면담자: 되게 뭔가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구술자: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당시에 사장님이 윤상준 사장[7]님인데 하여간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면담자: 특별히 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구술자: 행사는 어쨌든 고생한 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창립기념일 날 창립기념일 선물하는 거라든가 또 명절 때 전 직원한테 선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급여의 지급일이죠 당연할수도 있지만 경영이 어려워도 IMF 때에 조금 늦어진 거 말고는 제 날짜 어긴 적이 없어요. 회사가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어려워 월급 밀리고 뭐 이렇게 그런 회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9. 부도와 직원들의 결속 (00:35:44~00:43:45)

면담자: 아까 그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직원이 좀 감축된 거 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IMF 때도 그냥 그 인원수 그대로

구술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이 있었지만 공장 근로자에 대한 건 조정이 없었죠.

면담자: 그럼 약간 직원들이 더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구술자: 거꾸로 보면은 처음 부도 났을 때는 회사를 살려야 된다는 구사대[8] 같은 거 있죠. 구사대 그런 걸 해가지고 상당히 단결하였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면담지원자: 그 당시에는 직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구술자: 94년도니까 과장이었어요. 과장. 구사대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 부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정말
면담자: 그냥 회사가 어렵구나
구술자: 어렵구나 그리고 회사 누가 인수하려고 그런다 이거 안 된다. 회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었고 또 회사 부도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일이었냐 하면은 회사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MBC 9시 뉴스에 톱 뉴스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앵커가 아니 이름이 잊었다. MBC 사장까지 했었는데 (엄기영 아나운서)
면담자: 네 얼굴 얼굴 알 것 같아요. 네
구술자: 응 무슨 윤성 김윤성 아니야 무슨 윤성 9시에 첫 뉴스로 나올 정도로 회사 부도가 MBC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좀 심각했었죠. 그때 회사 규모도 있었었고
면담지원자: 부도 위기까지 몰린 원인이 있었을까요?
구술자: 그건 이제 저기 추론이죠. 추론 그건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사화는 이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니까)
면담자: 네.
구술자: 근데 그게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자금이 자꾸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버는 것보다 빚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면담지원자: 그 이전에
구술자: 자금회전이 안 되니까. 이제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판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얘기하다 보면 목포로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포 공장에 초기 대응팀으로 가게 되어 들었던 사항이지만 회사가 더 이상의 돌파구가 없었다고 해요.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공장을 하나 더 세워야 되고. 어렵지만 은행차입 등 자금을 준비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경영의 순환이 안 되는 악순환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죠
당시 목포 공장에 설치되는 파이프 제조설비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독일 미국 일본의 최신설비로 수입하였죠. 수입 설비를 갖다가
면담자: 좀 제대로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구술자: 그 공장은 규모가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비를 제작을 못하는 설비들이에요. 보조 설비들은 한국에서 제작되지만 메인 설비들은 일본 미국과 독일에서 수입해왔

죠. 그런데 설비제작중에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니까 3개개국에서 설비대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네요 어떻게 회수하겠어요 부도가 발생하여 큰일 났는데 자기들은 이미 설비가 제작에 들어갔고 돈을 못 받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정말 다르게 나타났어요.

제가 목포 공장에서 설비의 수입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일본에서는 담당자들이 바로 공장으로 몰려왔어요. 한 열몇 명이 같이 와서 저하고 면담하자는 거였죠. 서울 본사는 부도상황으로 책임자가 자리에 없었고 공장에서 실무담당하는 저는 목포에 있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볼 데 없으니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내가 과장이었고 차장이 됐나 안 됐나 그 정도였는데 저도 세부적인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어쨌든 일본측 담당자들이 와서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거고 메모를 하고 이래서 돌아갔어요. 제 입장에서도 확실한게 없었던 상황으로 답변에 매우 곤경에 처했었죠

일본은 부도상황을 분석하고 일정과 대금지급등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독일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회사측에는 문의가 없었죠 물어보는 게 없어. 독일회사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한국 산업은행이었죠 산업은행이 LC를 개설하면서 지급보증을 하는 은행이거든요. 그 은행에 문의하고 은행 보고 책임을 져라. 또는 은행 보고 일정이 어떻게 될 거냐 대금지급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은행하고 업무를 처리 하더라고요 결국 산업은행이 설비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회사측에 구상청구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에서 일정조정을 요청해서 초기보다 몇 개월 늦어지는 제작일정과 대금지급 일정을 조정하였죠 미국의 경우는 아무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일정대로 만들었고 제작후에는 배에 실어 보내왔습니다.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진행하였으니 일정대로 시행한 것이죠 그냥 만들고 물건 보내요. 그리고 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여 대금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고 설비는 공장완공이 지연되는 것만큼 공장내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자: 나라마다 다 틀리네요.

구술자: 정말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진행을 다르게 하는구나. LC라는 건 원래 취소 불능한 거래 신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설한 은행에서 지급해야 되죠. 국가 부도가 아니면 돈을 줘야 되거든 그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직접 와서 여러 가지 확인부터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독일은 은행과 은행이 거래했으니까 은행에게 지급하라는 것이고 미국은 은행도 있지만 국가의 신용문제이고 약속한 거니까 계약대로 대금을 받아낼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거죠.

면담자: 미국이 제일 냉정하네요.

구술자: 냉정하기도 하고 뭐 강한 거죠 미국측 제조사의 자신감

면담자: 와 세다

구술자: 세죠. 그걸 느꼈고

면담지원자: 약속에 대한 걸 되게 중하게 생각하자

구술자: 중요하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면담지원자: 우리가 한 약속 내가 지켰으니까 너도 지켜

구술자: 그런 거예요. 정말 칼 같아. 그리고 이게 그런 공장을 설립하고 해외업체와 거래하면서 얻은 경험등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상호간의 신뢰성을 제일 중요시 생각해요. 신뢰 믿을수 있어야 하는것. 반면에 신뢰성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믿어요.

면담자: 이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스스로 좀 약간 그런

구술자: 일본 사람들이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완전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믿게되면 그냥 믿고 가는데 믿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죠. 거부하고 아이 됐습니다 하고 사양하고 이러면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데 일단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리감이 상당히 줄어들고 신뢰하게되고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 자신도 없으면서 약속을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못지킬때 미안하긴 하지만 일단 질러보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음에 해 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거래와 대응에 있어서 약속에 대한 신뢰성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면담지원자: 그래서 무조건 서류. 요즘에는 증거를 남기죠.

구술자: 하여간 수출입 업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고 수출입 업무 자체에서는 국가 간이라든가 서류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얘기가 좀 달라졌네, 또.

면담자: 너무 재밌어요.

구술자: 옛날 얘기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10. 당시 회식 문화와 출퇴근 풍경 (00:43:46~00:48:00)

면담자: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파이프가 지역에서 좀 위상이 있다 보니 주변 상권도 좀 다른 곳과 달랐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하고 퇴근 후에 회식을 한다거나 그런 자리도 자주 가지셨나요?

구술자: 옛날에는 회식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요즘은 물가도 비싸고 더치페이라든가 비용분담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누구 하나 내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번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한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월급날 크게 하는 거고 맛있게 먹는 거 이런 거였죠. 외식 문화가 많이 없었으니까 외식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급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면 상당히 좋았었고 보람 있었고 재미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

면담자: 자주 가던 단골 식당 있으세요? 혹시

구술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삼거리 집이라고 있었고 옛날에 삼거리 집이라고 있을 거야. 막걸리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할 텐데

면담자: 그 막걸리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 (지도를 보면서)어떻게 봐야 되나

면담자: 혹시 여기도 보일까요? 위쪽 지도에

구술자: 저걸로 보시면 돼. 저기 뭐야. 지금 어디 사거리라고 해야하지. 풍림아이원하고 그 비슷한 거리 있죠. 풍림아이원에서 동사무소 가는 그 사거리. 거기가 사거리가 아니라 삼거리였잖아요. 여기가 지금 삼거리에서 커브길 그 근처야. 그러니까

면담자: 거기가 막걸리 집이 좀 이렇게 모여 있었나요?

구술자: 예. 있었어요. 아까 이 사진에서 어디야 그 개천 있는... 이쪽 끝이거든요. 이쪽 끝에서 이 뒤로 가면 그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이 끝으로 해가지고 골목에 거기 있었어요. 서너 군데 있었어요. 그리들 출퇴근도 많이 했어요. 출퇴근에 왜냐하면 대개 거주지가 이쪽 문학동 문학고개 이쪽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거리가 빨리 가려면 그렇죠. 초등학교 쪽이 아니라 저쪽 뒤쪽 골목으로 출퇴근도 많이 했다고 그쪽으로

면담자: 통근버스도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통근버스는 그럼 서울하고 인천만 왔다 갔다 했던.

구술자: 예. 서울에 인천하고

면담자: 그러면은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다니시고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근버스 운행한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구술자: 난 동대문에서부터 다녔거든요. 동대문 출발

면담자: 우와

면담지원자: 얼마나 걸렸어요?

구술자: 한 시간이 정도요. 교통 체증이 없으니까. 자가용들이 없었잖아요. 자가용이 그러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출근시간이 9시였을 거예요. 아마 8시 반까지 오려면 한 7시 반 정도 출발해야 하나. 저는 처음에 수유리 집에서 7시에 나오면 약 20분 걸려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갔었죠

면담자: 예. 81년도에 입사하시고 83년도 인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구술자: 서울 수유리 살 때 수유리부터 동대문까지는 그냥 시내버스 타고 와서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타면 회사까지 왔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는 차가 점점 많아지고 출근 인원이 줄고 자꾸 인천으로 이사 오니까. 동대문 운동장 출발이 나중에는 문래동 출발로 바뀌었죠 원래 공장에 문래동에 있었거든요. 영등포 문래동 출발로 옛날 구도로로 다녔죠. 부천, 부평 구도로 있죠, 교통량이 적어 막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부평 근처는 역만 있었고 나머지는 논밭이었으니까 주변이 뭐 그냥 신호등도 없고

면담자: 그럼 그 통근버스가 퇴사하실 때까지 계속 운행이 됐었나요?

구술자: 퇴사

면담자: 퇴임하실 때

구술자: 통근버스 이용자가 적어져 없어졌나 부도나고 없어졌나 모르겠네. 94년도 이전에 없어졌나 직원들이 인천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버스 이용인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없어지지

면담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통근버스가 없어지는 게 또 시대에 이렇게 또 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구술자: 그렇죠. 그렇죠.

11. 사내 구성원과 복지 (00:48:01~00:54:58)

면담자: 그때 그 모든 직원들이 그냥 통근버스 운행하시는 분도 직원이고 이러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구술자: 다 직원이었어요. 버스 기사도

면담자: 버스 기사분도 정직원이시고 사내 구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구술자: 아주머니들도 모두 정직원이고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계셨으니까. 옛날에 또 그 간식빵도 줬거든요. 작업 중간에 전원용으로 빵을 매일 구웠어요. 식당에서 직접 만들었죠 외부에서 사 오는 게 아니라 매일 200개 300개를 다 구워야 되니까. 매일 먹는 거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후 되면 빵을 가져오려고 식당으로 가죠 누가 당번인지 어느 파트나 마찬가지예요. 도금이면 도금 모든 파트 부분에서도 한 명씩 식당에 가서 빵을 지급받아 동료직원에게 나눠줘서 먹고 그랬었다고 옛날에요

면담자: 빵 종류는 뭐였어요?

구술자: 단순했어요. 뭐 어떻게 앙꼬 이런 거 없이 그냥

면담자: 도너츠

면담지원자: 아니에요

구술자: 그냥 그냥 맨 빵인데 이렇게

면담지원자: 달달 짭짤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구술자: 그 안에 소금 설탕 들어갔겠지만 앙꼬는 없이 속에 넣는 거 없이 그냥 빵이야 그냥

면담자: 약간 식빵 같은 느낌이었어요?

면담지원자: 근데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갓 구워서 줬으니까, 나도 몇 번 아빠가 주셔서

구술자: 그 동그란 빵 생각하면 단팥빵 예를 들면 단팥빵이겠죠. 그런 형태는

면담자: 단팥빵인데 안에 앙꼬 없는

구술자: 그런 거야. 형태는 그래요. 동그랗게 양이 크죠. 큰 거에다가 그것도 나눠 먹었어요.

면담지원자: 사이즈 꽤 컸어요.

구술자: 아주 컸어요. 커.

면담지원자: 그래서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컸어.

구술자: 컸어요 컸어. 그래서 간식으로 그걸 줘서 먹고 그랬던 거

면담지원자: 시중에 막 이렇게 지금처럼 빵집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아빠가 안 드시고 어느 날 갖고 오실 때가 있어서 먹으면 신기한 거야. 그때는 학교에서도 줬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우유하고 빵을 줬었어요. 나 어릴 때는 그러니까 사 먹을 기회는 별로 없고 그렇게 학교에서 주는 거 아니면 아빠가 가끔 주시는 빵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면담자: 다른 인근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인터뷰를 해서 보면, 구내 식당에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빵을 간식으로 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면담지원자: 이제 일이 고된 곳이다 보니 간식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구술자: 글쎄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사서 공급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만들 수 있으니까 인원도 있고 하니까. 직접 매일 만들어서.

면담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이 근무했던 분도 되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직원들 당사자들끼리 결혼한 경우도 있었고, 직원 자녀들끼리 결혼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어요.

면담자: 그럼 지금까지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네요.

구술자: 있죠.

면담자: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시고

구술자: 퇴직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몇개 있습니다. 지역별로 호남 향우회라든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걸프회라고 사우디 파견갔다 온 사람들끼리 연락해서 모이는 거 그래서 걸프회라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담자: 되게 뭔가 타지에서의 그 끈끈함이 굉장히 강렬했나 봐요.

구술자: 그렇죠. 사우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파견 나가면 한국과 연락도 어려웠고 공장 근처에서 살았던 데가 컨테이너였었죠 처음엔 숙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면담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구술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식사때는 버스를 타고 구내식당에 와서 밥 먹고 또 공장으로 가고 한번 그곳을 가봤어요. 그 옛날에 살았던 데 그다음에는 콘크리트 숙소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숙소도 나중에 가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거기서도 생활을 했었었고 그 당시 이렇게 힘들었겠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외로움이 더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도 급여를 많이 받고 하니까 또 가려들 했었었고

면담자: 지금에야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더워져서 그렇게 막 체감상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사우디 기후랑 저희는 우리나라랑은 많이 차이가 났었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럼 그렇게 사우디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진급이라든가 이게 조금 빨랐나요? 아니면
구술자: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진급이 아마 좀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급보다는
면담자: 급여가 차이가
구술자: 차이가 크니까 당시에 한 3배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3배 정도 안 돼도 두 배에서 2.5배 이렇게 해서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크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갔다 오면 집 장만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진짜 아쉬운 건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 진출이 안 돼가지고 사우디만 진출이 됐었죠. 베네수엘라 때문에 스페인어과 출신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사람들은 역할을 못했죠. 아랍어과 출신은 실력발휘를 하였는데, 차후에 보니 사우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를 하니까 굳이 아랍어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간에
사우디에 파견된 인원이 최대 약 200여명으로 당시 파이프 제조설비의 수출과 인건비 관리비 등 외화획득에도 상당히 기여했을거예요
면담자: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하셨구나 느껴져요.
구술자: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윤상준 사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
면담자: 되게 뭔가 선견지명도 있으신 것 같고 진짜 세상을 조금 더 더 넓게 바라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구술자: 그것도 있고 하여간 윤사장님은 자기 재산 욕심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하여간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든 더 열심히 좀 발전시키려고 그랬었고 이런 쪽으로 많이 아마 창업주니까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창업주니까
특이한 사항으로 회사내에 마을금고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저리대출과 예금업무도 병행했었죠 출자형식으로 운영, 또 주식담당자가 있었는데 당시 주식거래가 전산화 이전의 수작업으로 오전 오후 2번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각 사원들의 매매요청을 정

리해서 일괄적으로 중구에 있는 거래소에가서 대신 업무를 처리했었죠 우리사주로 인해 전직원이 주식을 갖고있었고 당시 주가도 꽤 올라서 이익도 많이 봤습니다 당시 주식 4인방이라 할 정도로 주식값 상승에 인기가 있었죠

12. 부도 전후 상황 (00:54:59~00:59:46)

면담지원자: 그때 한참 저희가 도시화되고 막 엄청 팽창될 때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수요도 엄청 많았을 거고

구술자: 많았죠.

면담지원자: 기간 산업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폐업 그 시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구술자: 폐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담지원자: 부도 날 때쯤. 그때까지도 창업주가 계속 계셨어요?

구술자: 창업주가 있었죠 계속이요. 있었는데 그 당시는 또 추측하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창업주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윤사장님이 뒤로 물러나면서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당시 전무이사

면담자: 아드님이나 이렇게 자녀분이 물려받지 않고

구술자: 자녀분은 더 어렸었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일본으로 가고 좀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전무이사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사장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을까. 자금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오너가 있었으면 좀 더 좀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면담지원자: 아쉬우셨겠어요?

구술자: 아쉽죠. 그 당시에 뭐가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면담지원자: 청춘을 다 바친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는

구술자: 그럼요. 얼마나

면담지원자: 저도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뉴스 아버지랑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IMF도 생각이 나고 진짜. 근데 그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우리는 IMF 때도

구술자: 우리나라 가요? 어디가

면담지원자: 저희 집 개인적으로는

구술자: 아니 기본적으로 회사는 IMF가 나든 뭘 하든지 월급 다 줬으니까. 물론 당시는 다른 대기업보다는 좀 적었겠죠.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받던 월급 계속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또 특근비라든가 다 지급했으니까

면담자: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구술자: 또 이게 있잖아요. 흑자 부도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부도난 게 아니라. 이거 틀어막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당시에 부도 났을 때 말이죠. 현찰

이 200억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200억 지금 얘기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래서 인수를 한 신호그룹이 있어요. 인수 담당자가 와서 쉽게 말해 회사 금고를 열어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현찰이 이렇게 있으면서 왜 부도를 내지 이렇게 (현찰이 아니고 장부상 현금이었겠죠.)

면담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술자: 안 됐는데 흑자 부도였다고, 흑자 부도.

면담자: 너무 속상하다. 진짜.

구술자: 그리고 이게 관리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목포 공장 800억인가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자금에 대한 어떤 적합한 관리도 안되고

면담자: 순환이 안 되고

구술자: 안 되겠다. 여기서 더 끌어 가다가는 더 큰일이다 부도내자 뭐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낸 거 아닌가 또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당시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하니까 설마 목포에 공장을 신설중인 이 회사를 파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건 있어요. 나중에 어디 자주 찾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한국 파이프에 대한 청산 절차 관련한 이게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그 판정을 50부 파산부에서 판정했다고 하던데 상당히 특이한 경우래요 이렇게 판정 결과 내는 경우가 없었는데 특이하게 파산철차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유를 들어서 이런 판정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청산시키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례였는데 한국 파이프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면담자: 약간 회사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보도를 그때 이렇게 하셨던 게

구술자: 그래서 경쟁사들은 한국파이프가 파산되고 하면 다 기대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주인은 바뀌었지만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이어져 나갔으니까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81년도에 입사해서 2019년도까지 38년인가 근무했으니까 회사는 파산하지 않고 이어졌죠.

13. 동양화학의 기억 (00:59:47~01:09:34)

면담자: 뭔가 좀 뭉클한 것 같아요.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느껴져 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동양화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때 동양화학은 모르는데 그때 저희 면담 끝나고 살짝 들려주셨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경험하셨던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동양화학도 되게 큰 회사였잖아요. 이제 미추홀구에서 지역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동양화학과 교류를 맺거나 이런

구술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다 그렇잖아요.

면담자: 업종이 다른

구술자: 다르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 그 화학물질 구매해서 우리가 가성소다를 동양화학에서 구입해 사용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연결된 실무자니까 그 정도만 알고 회사 대 회사로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아마 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업무교류죠. 이런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있었던 거지.

면담자: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뭔가 구입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혹시 그거는 잘 모르시고

구술자: 일종의 회사의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이 동양화학에서는 버리는 물질로 나오고 우리는 필요했고 하니까 쉽게 이루어진 거래였죠

면담지원자: 물류비가 엄청 절약 됐겠다.

구술자: 당시에는 물류비도 말이죠. 휘발유 값은 잘 몰랐지만 물류비용 때문에 경쟁이 심해져서 원가절감해야 한다는 것보다 상대측 불필요한 물질이 당사에서는 필요했고 연결도 쉽고 당연 물류비용도 절감되서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해 봐요. 식당 아주머니들까지 다 정직으로 쓸 필요까지 없잖아요. 지금은 하청(협력사) 이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회사로 볼 때는 더 세이브 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직접 운영하는 거고. 운반트럭도 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했죠, 지금은 외부 트럭을 용차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것이 비용이 적게드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면담자: 자체적으로

구술자: 자체적으로 조그만 물건 하나 가는데도 12톤짜리 트럭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담지원자: 그때는 일할 사람 자체가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직원이었어.

구술자: 다 정직원이었죠.

면담지원자: 인구 늘어나고 하면서

구술자: 맞아요. 그리고 회사 규모로 볼 때 급여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매출에 비해서 안 비싸다고 급여가 높지 않으니까. 급여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거는 상당히 적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철강산업이 매출액대비 급여비가 낮았고 노동강도나 위험성에 비해서 낮은 급여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엄청나네요. 매출액이 다른 데랑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매출액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구술자: 철강이 철강이 원래 좀 뭐랄까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고 설치 설비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죠. 옛날 우스개말로 하면 그게 있어요. 철강이라는 거는 이게 들었다 놓았다 해도 떨어지

는 철가루 있죠. 철가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면담자: 수입성이 좋은
구술자: 수익성이 좋았고 수익성이 정말 좋았어요. 경쟁이 거의 없었으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파이프가 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수가 되도 그냥 판매했대요. 필요하면 구매자가 용접해서 쓰라고. 그래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아쉬운데 일단 외관이 동그라면 다 팔았대요. 제가 입사하기 전 이야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면담지원자: 그렇죠. 1년에 몇만 세대씩 계속 주택을
면담자: 그렇죠. 다 경제 도시 발전 붐이었으니까
구술자: 엄청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면담지원자: 인프라 깔아야지. 정말 파이프의 소비가 엄청난 시기였던.
구술자: 그러니까 아까 이 앞으로 여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나 보다. 이건 이때만 해도 좀 정비가 됐네. 이거 깨끗하게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흙이었어요. 이게 또랑이 위에가 [사진설명]

면담자: 또랑이요?
구술자: 예 옆이 또랑 흙이었고 여기에 이제 원대강을 저기 원료를 갖다가 쭉 깔아놨다니까
면담자: 여기가 물이잖아요.
구술자: 물이에요.
면담자: 물 냄새는 안 났나요?
구술자: 엄청난 냄새 났어요. 엄청 났죠.
면담자: 그 회사 사무실에 있어도 악취가 났었나요?
면담지원자: 아니야 평상시에 좀 덜 하다가요. 아버지 말씀으로 비가 막 오면 회사에서 몰래 몰래 버렸대요. 그래서 막 물 색깔도 이렇게 막
구술자: 회사도 그렇고 아마 이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 색깔은 색깔 뭐 말할 것도 없고
면담자: 범람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비가 오면
구술자: 범락하지 않아도 이제 막 높이 찰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 버스가 여기 다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도 다리가 있어요. 거기
면담자: 네네네. 맞아요.
구술자: 그 다리를 건너갈수 있나 할 정도로까지 갔어요. 그 정도였고 막 넘치거나 이런 것들은 제 기억이 없어요.
면담지원자: 매립지니까 지대가 높지는 않잖아요.
구술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2공장이라 해서 이쪽 부분 사진에 지난번 드린 게 이게 본

건물이거든요.

면담자: 본관 네.

구술자: 이쪽만 있었고 네. 이건 없었어요. 이쪽이 처음에는 81년도 쯤에는 여기가 다 그냥 나대지였고 예전에 논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건물 지어서 이쪽에 이렇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면담지원자: 지난번 사진에 그러면 건축하고 찍은 사진

구술자: 그거는 이것만 이쪽만 있었죠. 이렇게만 있었죠. 이쪽만 맞아요. 이것 밖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다고 이게 2공장인데 이쪽 공장. 이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면담자: 대규모 단지였구나. 진짜

면담지원자: 왜냐하면 파이프가 길어야 되니까 우선 긴 모양이었던 것 같아.

구술자: 그래서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도로가 있었는데 뒤에 주민들이 이곳으로 다녔죠.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학익 초등학교 쪽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회사가 2공장을 지으면서 전체 공장 부지에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2공장 뒤에 사시는 분들이 이 통행권을 달라 이곳으로 다니겠다 그래서 여기를 틀어막고 난리가 났었지요 데모를 하고

면담자: 어떻게 됐나요? 그때

구술자: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죠.

면담지원자: 어쨌거나 사유지잖아 막아도 할 말이 없어.

구술자: 이 뒤쪽에 어쨌든 공장이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주택 재개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그냥 무허가 쪽이었죠. 건물도 많이 있었고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이 근무하셨을 당시에 뭐 이렇게 동양화학이 뭐를 하는 곳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셨나요?

구술자: 몰랐어요.

면담자: 전혀 오히려 퇴직하시고 나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지나고 나서

구술자: 그거보다도 좀 뭐랄까 교류가 없었으니까. 동양화학과 철강회사의 생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사 자기일에 집중하는 방식, 지금은 지역에 있으면 다른 회사와 교류가 많아요. 당진 공장이나 목포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그런 교류보다는 어쨌든 내 공장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많이 했고 다른 회사는 크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럼 동양학에서 운영했던 새 인천 풀장에 대해서도

구술자: 잘 몰라요.

면담자: 모르시는

구술자: 몰라요

면담지원자: 안 놀러 가셨어요?

구술자: 동양화학 쪽에
면담지원자: 저희는 놀러 갔었는 데
구술자: 그래요? 가면 송도 쪽이나 갔지
면담지원자: 네 송도도 갔지만, 새인천이 좀 더 가까웠던 기억이 있어서 언니 오빠들하고 자주 갔었어요.
구술자: 저는 94년도 부도 이후부터는 목포로 내려갔기 때문에
면담자: 그렇죠.
구술자: 그이후의 인천 주변환경은 잘 몰라요.
면담자: 그쵸 그쵸. 그럼 철도가 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동양으로 들어가 혹시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철길을 보셨다거나 뭐
구술자: 그건 없네요. 그건 없고 우리는 계열사로 한관산기라고 있었죠. 한관산기라고 그렇게 반월에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 출장 가려면 송도역에 가서 옛날 협궤 열차 그걸 타고 반월에 갔었죠. 그거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면담자: 협궤 열차를 타셨군요.
구술자: 그거 이제 하루에 몇 번 다녔나 다니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면담자: 수인선 말씀하시거죠.
구술자: 네
면담자: 오늘 동양화학은 없는 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
구술자: 동양화학을 다녔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담자: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 인근 회사에서도 동양화학을 기억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수집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여쭤봤어요.

13. 인천 지역 산업사에 한국 파이프 (01:09:35~01:12:11)

면담자: 마무리 이제 질문드릴게요. 1981년에 입사하셔가지고 19년도에 이제 부사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40년 가까이 이제 한 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머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요즘 세상 요즘 사람들한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지금 돌아봤을 때 이제 인천 지역 산업사에 이 한국 파이프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한국 파이프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우선 파이프라는 제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관 산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보면 뼈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석유 운반이라든가 관련된 산업에 있어가지고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고 이런 것을 생산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향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쟁력 때문에 만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세계의 누군가는 만들어야 돼요. 파이프는 새 파이프는 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재질 문제도 그렇고 이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제품이고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람을 느끼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쪽도 마찬가지고 또 수출입 관계 쪽도 마찬가지고 해외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저희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또 어떻게 살아왔다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좋은 회사였었고 인천에서도 지금 당진에 갔지만 이전하기 전까지는 회사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었었고 또 회사 지역에 대한 기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기억 또 세계에 대한 기여도 많이 했었던 회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간 지역 어떤 재개발 때문에 이전했지만은 인천 지역 미추홀에서 상당히 유명한 또 이렇게 뭐랄까 보람이 있었던 회사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회사였지 않았을까 여러 면에서 기여를 하는

14. 마무리 소감 (01:12:12~01:15:04)

면담자: 인터뷰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였는지를 저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굉장히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굉장히 감사한 회사였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이번 구슬에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구술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사우디에 진출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우디에 가서 고생했던 분들 또 이런 거 사진을 갖다가 제가 모으려고 했었어요. 회사내에서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고자 생각했었는데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진행을 못했어요. 오늘 이런 자리가 미추홀구에서의 어떤 흐름,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정리해서 구민들이 알게 하고 미추홀구에 살면서 예전분들의 노력과 지역을 발전시킨 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지역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거를 다시 정리하고 되새기고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군가가 안 하면 영원히 잊혀지는 거예요. 이런 조사활동이 없으면 과거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분들과 회사 노력의 흔적이 없어지겠죠 예전 명칭인 남구 학익동일대 공장지대에서 생산되었던 제품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수출되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시개발로 공장들이 타지역으로 이전되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의 고생과 노력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한국파이프 내부적으로는 사우디 파견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사실 제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진하고 자료를 모으기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된게 아닌가. 이 비디오에서 옛날 한

국 파이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 자료가 있다면 모아서 기록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전시회를 갖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는 제조업의 중심지에서 교육 문화등의 새로운 지역으로 발전하는 미추홀구가 이런 저력들이 이어져 살기좋은 복합 도시지역으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면담자: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의 취지를 되게 잘 이해해 주시는
구술자: 좀 더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좀 더. 왜냐하면은 그런 기록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향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요. 그게 그게 상당히 좀 좋은 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면담자: 저희가 올해는 전시 이렇게 주신 자료들하고 사진 이제 기록 구술하면서 찍은 사진들로 연말에 이제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이렇게 구슬 작업했던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내년에 이제 책으로 이제 발행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물 나오면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

---

1) 경인직(京仁職): '서울(京)'과 인천(仁川)'을 연결하는 지역의 공무원 직렬 또는 노선·기관 명칭
2) 원대강: 핫코일(HOT COIL), 슬라브에 열을 가하고 롤러로 펴서 늘린 강판을 말하며, 정식명칭은 열연강판
3)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 휘어지는(유연한) 관(管)으로, 모양을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호스나 배관
4) AC(Alternating Current): 교류. 시간에 따라 극성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
5) DC(Direct current): 직류. 바로 흘러들어오는 다이렉트 전류
6) 터번(turban): 인도인이나 무슬림이 머리에 둘러감는 수건
7) 윤상준 사장: 한국강관 설립자이자 초대 대표 / 설립일: 1967년 4월 18일
8) 구사대(救社隊): 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